

## 비트캠프 안양 센터

### LMS 시나리오

버전: 1.0

소속: 3조

이름: 선현주

#### # 집, 취업 준비생 성욱

경기도 안양시에 거주 중인 성욱이는 얼마전 대학을 졸업한 취업 준비생이다.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한 성욱은 학부 생활이 적성에 맞지 않아 학점 관리에 소홀했고 결국 졸업 후 취업 활동에서도 애를 먹고 있다. 현재로서는 별다른 선택지가 없으므로 영어 공인 시험 점수를 만들고 자격증 공부를 하며 취업에 적합한 스펙 쌓기에 매진하고 있지만, 최근들어 신입생 시절 호기심에 수강했었던 JAVA를 다시 공부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컴퓨터 공학을 전공한 학생들처럼 복잡하고 그럴듯한 결과물을 만들어내진 못했어도 한 줄 한 줄 직접 로직을 짜서 코딩을 하는 것에 제법 흥미를 느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시 대학에 들어가 공부를 하며 시간적, 금전적인 리스크를 감당할 여유는 되지 않을 것 같았다. 언젠가 4년간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도 적성에 맞지 않아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현업에서 개발자로 활동 중인 지인의 조언 또한 성욱을 망설이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였다. 성욱은 독서실에 가는 대신 컴퓨터 앞에 앉아 웹 브라우저를 열었다. 평소 자주 이용하는 포털 사이트에 접속한 뒤 검색창을 이용해 인터넷으로 수강할 수 있는 강좌들이 있는 지 먼저 살펴보고 온라인, 오프라인을 포함해 많이 알려졌거나 수강 후기가 좋은 학원들을 모아 목록을 작성했다. 성욱이 가장 염두에 두고 있는 JAVA 기반 웹&앱 개발 수업의 커리큘럼들은 대부분 이른 아침부터 저녁까지, 6개월 단위의 다소 빡빡한 일정인 경우가 많았다. 성욱은 고등학교 시절을 떠올렸다. 반복적인 생활에서 쉽게 나태해지는 자신의 성향을 감안 했을 때 출결 관리나 과제, 시험 등을 통해 긴장감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엄격한 시스템을 갖춘 학원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다. 또한 학원 수업 외에 혼자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집에서 멀리 떨어진 학원들은 후보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았다. 성욱은 개발자들이 자주 이용하는 커뮤니티에서 가장 많은 추천을 받은 IT 교육센터, 비트캠프의 홈페이지에 접속했다. 홈페이지 메인에 접속하는 동시에 얼마전 비트캠프 안양 지점을 새로 오픈 했다는 광고 이미지와 관련된 내용이 간단하게 실린 팝업 창이 떴다. 성욱은 팝업 창을 클릭해 상세 페이지로 이동했다. 한 달 전 안양시에 비트 캠프의 분점이 생겼고, 입학생을 받기 위한 상담 및 면접 신청을 받고 있었다. 상세 페이지에 연결된 안양 센터의 홈페이지로 접속하자 자바 기반의 개발자 양성 과정 수업들이 개설된 것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 성욱은 이달 개강하는 강좌를 클릭해 강좌 상세 정보 페이지에서 해당 강좌의

커리큘럼을 꼼꼼하게 확인한 후에 다시 메인 페이지로 이동했다. 메뉴바의 ‘찾아오시는 길’을 클릭하자 고객센터의 연락처가 센터별로 적혀있었다. 성욱은 상담 센터와 연결된 온라인 메신저의 채팅 기능을 이용해 안양 지점 담당자에게 수강하고 싶은 강좌와 면접 및 간단한 테스트에 대한 문의를 했다.

## # 비트캠프 안양 센터 영업팀 사무실, 사원 김유미

직장 동료들과 함께 점심을 먹고 막 사무실로 복귀한 유미. 자리에 앉자마자 모니터 하단에 새로운 채팅창이 났다는 알람이 깜빡거리는 걸 확인한다. 창을 열어보니 이번 달 중순에 개강 일정이 잡힌 자바 기반 웹&앱 개발자 양성 과정에 대한 문의다. 유미는 간단하게 메신저로 인사를 하고 잠시만 기다려달라는 양해를 구한 뒤 웹 브라우저를 열고 학원 홈페이지에 접속한다. 로그인 창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치고 로그인 버튼을 누르자 관리자용 메인 페이지가 뜬다. 유미는 익숙하게 메뉴에서 일정 관리 페이지로 이동해 해당 강좌의 모집 인원 숫자가 얼마나 채워졌는지를 빠르게 확인했다. 이번 주에 상담을 희망하는 여덟명의 학생들과 면접을 진행하긴 하지만, 아직 열 명 정도의 공석이 남아 있었다. 유미는 문의를 한 성욱에게 메신저로 아직 수강생을 모집 받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 시켜주고 학원 일정 등록 페이지를 열어 가장 가까운 면접 날짜와 학원의 주소를 보내주었다. 성욱은 삼일 후에 학원에서 진행하는 상담과 면접에 참여하겠다는 이야기와 함께 유미가 요청한 이름과 휴대폰 번호, 수강 희망 강좌명을 메시지로 전송했다. 유미는 해당 강좌의 관리자 상세 페이지로 이동해 이번주에 진행하는 상담 및 면접 일정에 성욱의 개인 정보를 입력하고 추가했다. 비트캠프 안양센터는 오픈한 지 세 달이 채 되지 않은 신생 학원이다. 하지만 학원의 모든 지점이 동일한 LMS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강남 센터에서 안양으로 발령을 받은 유미 또한 큰 어려움 없이 새로운 업무 환경에 적응해가는 중이었다. 유미는 다음 달 새롭게 개설하는 강좌를 홍보하기 위해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띄울 강좌에 대한 간략한 정보와 홍보 문구를 만들었다. 이 작업들이 완성되면 안양 센터의 홈페이지 메인에 팝업창으로 등록될 예정이다.

## # 집, 학원 수강생 성욱

학원의 상담 및 면접을 마친 성욱은 안양 센터에서 자바 기반 웹 개발자 양성 과정을 수강하기로 결정했다. 집에서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데다 신설 학원이라 깨끗한 시설도 마음에 들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LMS를 이용한 출결과 과제, 성적 관리 등 자동화로 돌아가는 시스템에 신뢰가 갔다. 그것이 조금 엄격하게 느껴지기도 했지만, 6개월간 다른

곳에 정신을 팔지 않고 수업에 집중하기 위해선 그것이 성육에겐 최적의 조건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강좌마다 개설된 질문 게시판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점 또한 마음에 들었다. 수업 도중 질문을 하면 수업의 흐름을 깰 것 같다는 염려 때문에 때론 궁금한 게 있어도 미루다가 잊어버리고는 했었는데, 질문 게시판을 이용하면 시간과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질문을 할 수 있었다. 다른 학생들의 질문과 답변들을 열람하는 것 또한 공부에 도움이 될 것이다. 성육은 집으로 돌아와 비트캠프 안양 센터의 홈페이지에 접속했다. 학원에서 일러준 대로 회원 가입 버튼을 눌러 간단한 개인 정보 사항들을 기재하고 가입했다. 이미 수강생으로 등록이 된 상태여서 로그인을 하자 수강생 전용 로그인 페이지가 열린다. 오늘은 수업을 시작한 첫째날이다. 오늘은 앞으로 배울 과정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이 이루어졌고 남은 시간은 수업을 진행했다. 강의실에 입실하고 퇴실할 때 반드시 LMS 페이지에 접속해 입실과 퇴실 버튼 눌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학원에 출석을 했더라도 전산상으로는 지각을 하거나 결석을 한 것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학원에서는 수업을 마친 후에 항상 LMS에 로그인한 뒤 내 강의실에 접속해 출결 사항과 과제 여부를 확인할 것을 권고했다. 성육은 오늘의 출결 상태를 확인하고 과제 게시판에 접속했다. 오늘 날짜로 새로운 과제가 게시판에 등록되어있다. 상태 항목에 '진행중'이 띄워져 있는 것을 확인한 성육은 글 제목을 클릭해 상세 페이지를 확인했다. 오늘 배운 출력문을 사용하는 문제를 풀던 중 강의 시간에 들었던 명령문이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 성육은 다시 LMS 페이지를 열어 자료 게시판에 접속했다. 강사님이 오늘 날짜로 올려둔 PPT 파일이 게시판에 등록 되어있었다. 성육은 글 목록에서 오늘자 게시물을 클릭해서 강사님이 첨부한 PPT 파일을 내려받고 그것을 참고해 첫 번째 과제를 무사히 마쳤다. 내일 배우게 될 반복문을 미리 예습하기 위해서 메인 페이지에 링크 되어있는 Youtube 사이트에 접속해 학원 이름으로 등록된 동영상 강좌를 수강했다.

## # 비트캠프 안양 센터, 강사 김철수

비트 캠프 강남 센터에서 2년여간 응용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강의를 하던 철수는 얼마전 안양 센터로 근무지를 옮겼다. 오늘은 JAVA 기반 웹&앱 개발자 양성 과정의 첫날. 수업 준비를 하기 위해 비트캠프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자 강사용 메인 페이지가 뜬다. 철수는 화면 상단에 있는 내 강의실 페이지에 들어가 출석 입력 페이지를 통해 학생 숫자와 이름을 대강 파악한다. 강남 센터에서 근무했을 당시에 LMS 시스템을 이용해 학생들의 출결이나 성적관리 등을 해왔기 때문에 새로운 근무 환경에서도 특별하게 어려운 점은 없었다. 수업 시작 5분 전 강의실에 먼저 입실한 철수는 출석 입력 페이지에 접속해 출석한 학생들을 차례로 등록했다. 수업 시작 시간보다 10분 이상 늦게 입실한 학생들은 지각으로 처리하고 점심 시간 이후로 입실하면 결석으로 처리한다. 월요일부터 금요일 주 5일, 오전부터 저녁까지 수업이 이어지기 때문에 종종 개인적인 사유로 조퇴를 하는 학생들도 있다. 오전

수업을 모두 수강했을 경우에 한해 조퇴로 처리한다. 수업 첫날이라 그런지 세 명을 제외한 모든 학생들이 제 시간에 입실했다. 출석부에 27개의 동그라미, 3개의 엑스 표시를 기입하고 오전 중에 입실한 두 명은 나중에 세모 표시로 출결 상태를 바꿨다. 다른 한 명은 수업이 끝날 때까지 오지 않아 결석으로 처리되었다. 수업을 마친 후 철수는 과제 게시판에 접속했다. 수업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응용해볼 수 있도록 만든 문제 몇 개를 과제 게시판에 등록하고 제출 기한 또한 지정했다. 과제 목록에 과제의 제목, 진행 중인지 종료 되었는 지를 알리는 상태와 등록일이 함께 뜬다. 철수는 다시 메인 페이지로 돌아가 일정 등록에 오늘 추가한 과제를 등록했다. 그리고 다시 수업 자료실로 이동했다. 학생들이 과제를 하는 데에 활용할 수 있도록 오늘 수업 시간에 사용했던 PPT 자료들을 게시판의 첨부 파일 기능을 이용해 업로드했다. 거기까지 마쳤을 때 메신저의 알람이 뜬다. 철수는 깜빡거리며 알람이 울리는 학원 메신저를 클릭했다. 곧 행정팀에서 전달한 메시지가 뜬다. 오늘 결석을 한 학생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학원 수강을 취소 했다는 내용의 메시지였다. 철수는 학생의 이름을 확인하고 다시 출석 입력 페이지로 접속하자 명단에서 그 학생의 이름이 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미 행정팀에서 관리자 아이디로 접속해 출석 명단을 수정한 것 같았다. 철수는 확인했다는 메시지를 행정팀에게 보내고 질문 게시판에 접속 했다. 벌써 두 개의 질문이 등록되어있었다. 하나는 건강상의 문제로 병원에 가야한다는, 출결 관련 질문이었고 다른 하나는 수업 내용과 관련된 질문이었다. 먼저 올라온 출결 관련 질문은 게시판의 상태란에 '답변완료'라고 적힌 문구를 통해 이미 행정팀의 관리자가 답변을 등록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철수는 다른 하나의 질문 게시물을 클릭하고 상세 페이지에 들어가 내용을 확인한 뒤 댓글 기능을 이용해 답변을 등록했다.